

‘실업 공포’ 현실화 되나

11월 기준 일자리 못찾은 ‘백수’ 275만명
하반기 들어서 취업자 증가수도 ‘반토막’
내년 실업률 3.6~3.7%... ‘고용쇼크’ 우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회사가 망해 사라지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실업 공포가 환란 이후 10년 만에 다시 엄습하고 있다.

청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죽을 힘을 다해 학점을 쫓고 영어 공인인증 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따는 등 이른바 ‘다방면의 스피크’를 갖춰오며 원하는 직장에서 아예 사람 뽑을 생각을 안하면 도무지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같은 실업공포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경기가 올해보다 추

락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절대적인 수치까지 줄게 돼 환란 당시를 방불하는 실업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0만명 안팎을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하반기부터 뚝 떨어져 지난 8월에는 절반수준인 15만9천명을 기록하더니 다시 9월에는 11만2천명, 10월에 9만7천명으로 떨어졌고 11월에는 7만8천명에 불과했다.

최근 3개월 만에 또 반토막이 난 것이

로 정부가 한차례 줄여서 발표한 목표치(20만명)의 3분의 1을 갓 넘는 수준이다.

일자리가 이처럼 늘지 않으면서 통계청 집계로 ‘사실상 백수’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이 11월 기준으로 275만4천명이 된다.

공식적인 실업자(75만명)보다도 구직단념자(12만5천명), 취업준비자(55만2천명), 그냥 쉬는 사람(132만7천명) 등이 훨씬 많다.

하지만 이번 고용 쇼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실물경제가 바닥을 향하면서 고용 방하기가 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6개 기관이 내놓은 내년 실업률 전망 평균치는 3.5%다. 올해 실업률이 3.2%로 예상되는 점에 비해 0.3%포인트 높여잡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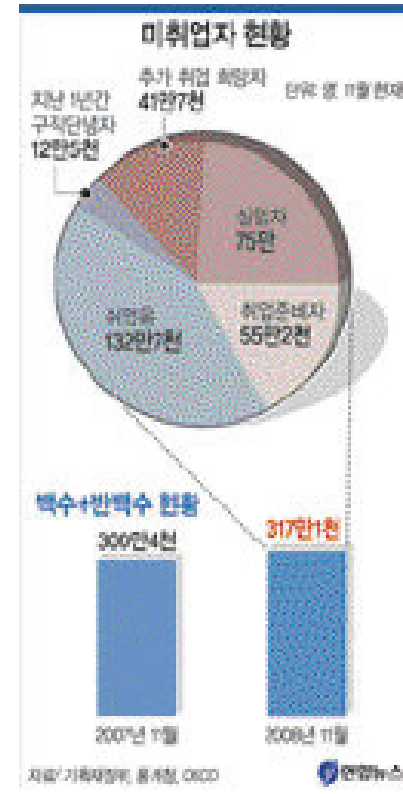
고용완화가 본격화된 지난 9~11월 실업률이 3.0~3.1%였다는 점과 비교하

면 0.5%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실업률은 한국은행이 3.6%, KDI가 3.7%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치는 올해나 지난해(3.2%)보다 높지만 2006년(3.5%) 수준으로 겹보이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고용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긴 착시효과에 따른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향후 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유휴 인력의 확대 때문”이라며 “2009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제각각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며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 방하기가 당했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 정책은 주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훈련이나 인턴제 등에 치중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에 감원 바람이 부는 것도 취업난을 가중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15%, 한국전력(10% 등 직원을 줄이는 공공기업들의 경영 효율화 대책이 속속 마련되면서 공공기업 채용시장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光銀 “휴면예금 찾아가세요”

광주은행은 15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휴면예금 찾아가세요’ 운동을 펼친다. 휴면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통장, 거래인감이 필요하며 통장이나 거래인감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 시중銀 자본 확충

국책銀 내년도 출자액 5조 확대

정부가 시중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책은행에 대한 내년도 출자액도 5조원대로 대폭 확대했다.

발권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물경제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은행 자본확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자금중개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실물경제에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좀더 진행될 경우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정부 내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내년 1월 말까지는 올해 12월 말 기준 은행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윤곽이 드러난다”며 “이 때부터 BIS 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2월 중순까지 권고치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국책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13개 은행에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9%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자본을 늘리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은행별로 12월 말 기준 기본자기자본 비율 추정치를 갖고 제시한 자본 확충 규모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3조 원대이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조 원 안팎이며 9개 지방은행은 1천억~5천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스스로 자본확충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OEM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제품 앞면 한글 표기 의무화

해외에서 만들어 반입하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앞으로는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식품 전면에 지금보다 크게 하고 표기도 한글로만 해야 한다.

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수입자만 과징금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도 과징금을 물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위반 시 제재방식을 바꿔 내년 1월1일(표시확대 및 한글표기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장 부과제도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2년 간 적발된 적이 없으면 기준금액에서 절반을 깎아주지만 위반이 1회 추가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늘어나 최고 50%까지 더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대상도 지금까지 수입자로 한정되던 것을 판매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호생명 매각 ‘초읽기’

12일 입찰 마감... 인수 후보 7~8곳

금호생명 매각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매각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12일 인수를 위한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했다. 입찰에는 미국 보험사인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등과 국내외 사모펀드(PDF) 등 7~8곳이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때 관심을 보였으나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된 곳 중 프랑스로 그룹 약사,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롯데그룹 등은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은 조만간 입찰제안서를 검토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건은 가격이다. 금호생명이 금호그룹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현금화 차원에서 매물로 나온 만큼 그룹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만 쳐준다면 매각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유례 없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종 자산 가치가 폭락해 금호생명 주가(장외)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올해 초 장외시장에서 3만원 초반대였던 금호생명 주가는 최근 9천500~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능성 스키복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4일 6층 후부 매장에서 다양한 색깔과 기능을 가진 스키복과 스키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 150조

올해보다 16조 늘어나

내년에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1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주요 재정지표 및 분야별 재원배분을 분석해 15일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150조9천억 원으로 올해 134조8천억 원에 비해 16조1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정부안 제출시점의 예상치인 148조6천억 원에 비해 2조3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안 제출 이후 민생 안정 및 종합

부동산세 감세안이 나오면서 적자성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14.7% 규모다.

내년 총 국가채무의 경우 352조8천억 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역시 정부안 제출 때보다 2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 채무는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부는 내년 재정수지가 24조8천억 원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예상한 규모보다 적자폭이 3조원 더 늘어난 것이다.

로도복권 (제13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13 33 35 43 45	23	8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308,728,62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4,530,360
3	5개 숫자 일치	1,641,554
4	4개 숫자 일치	62,091
5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138회)

등 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411364
2	1억	5조 781723
3	1천만	2조 960993
4	1백만	각조 65517
5	50만	각조 6118
6	2천	각조 16
		각조 96
		각조 31
		각조 6
7	1천	각조 8
		각조 5

신용대출 금리도 5%대 ↓

우리은행 최저 5.92% ... 주택대출 이어 전방위 확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과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도 최저금리가 5%대로 떨어졌다.

대출금리 하락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주 초 우리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5.92~11.25%로 지난 주 초보다 0.47%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가 5%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7월 중순 이후 1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17일 6.52~11.85%에 비해서는 한 달간 0.60%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는 6.25~11.31%로 지난 주보다 0.70%포인트 떨어졌다.

시중금리에 연동되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의 리드스폰 금리도 6.98~8.78%로 0.70%포인트 급락하면서 최저금리가 6%대로 하락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4일 스마트론과 닥터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달부터 0.10%포인트 추가 인하해 11.90%와 11.10%를 적용하고 있다. 이달 들어 직장인신용대출 3개월제와 1년제 기준금리도 10.60%와 11.55%로 각각 0.10%포인트와 0.05%포인트 인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주 초 우리은행의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금리는 5.88~7.18%로 지난 주 초보다 0.47%포인트 급락했

으며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8.16~9.26%로 0.51%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이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한 이후 양도성에보증서(CD)와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금리가 큰 폭 떨어지자 은행 대출금리도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CD금리는 10월 24일 6.18%에서 이달 12일 4.75%로 급락했으며 3년 만기 은행채(AAA등급)의 금리는 지난달 말 7.84%에서 이달 12일 6.70%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서 신용으로 5천만원을 대출했다면 연간 이자 부담이 한달 전보다 30만원 줄어들게 된다.

기업 10곳 중 3곳 ‘투기등급’

한신평 등 3개 기관 평가... 183곳이 ‘BB’ 이하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10개 중에서 3곳이 신용평가사로부터 ‘투기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KIS채권평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평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들(617개사)의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 ‘BB’ 이하의 투기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수가 총 183개사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이중 ‘BB+~B-’ 등급을 받은 147개 기업들은 원리금 지급 능력이 당장은 문제되지 않지만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거나, 원리금 지급능력이 떨어져

불황 때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다.

최근 한신평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중장건설 등 일부 건설사들의 장기 회사채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BB등급 이하)으로 내렸다. 또 최하위인 ‘CCC~D’ 등급을 받은 기업 수는 총 37개사로 전체의 5.8%로 집계됐다.

C 등급은 채무 이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나타내며 D 등급은 부도나 화의 등으로 이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기업들에 부여된다. 시장에서도 C 이하 등급의 회사채는 실질적인 부실채권(정크본드)으로 간주된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인포데이트(주) 전남본부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인바운드)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360-0503
(주)인퍼션	경리사후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15	070-7430-0345
빅태우수학교실	[남구]학원관리(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7	062-674-9911
프리머스에이치알(주)	SK텔레콤 114 상담원 동시채용-주5일(연봉2400)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12/18	062-383-1756
(주)아이리버	광주아이리버준 고객관리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18	02-3019-6554
살롱산업(주)	영업관리 및 지원(경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9	062-652-2701
미래에셋생명 신세계지점	[주5일]전문금융컨설턴트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4000~5000	12/19	062-382-1007
에한(주)	사무, 경리, 사무보조, 그래픽 디자인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1200~1400	12/19	062-372-3050
누가내과,소아과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655-7585
CL 디자인그룹	현장관리직 1명 / 디자인 1명 경력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2/20	062-603-1083
이트인	일러스트제작 및 웹디자인 팀장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21	062-376-6521
광주과학기술원	웹 관리 및 데이터처리시스템 (DB, C프로그래밍 능숙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1	062-970-2412
EK Productions Inc.	BTL 부문 이벤트기획 경력직	대졸/경력10년	회사내규	12/21	062-513-505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정렬수기자 bungju@kwangju.co.kr